전주시, 지역건설산업 살리기 앞장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민간건설사와 활성화 협약 체결… 공사 시 지역자재 80% 이상 사용 등 노력키로

전주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현재 전주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광신종합건설, 현대비에스앤씨, ㈜유탑건설 등 민간건설회사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절반을 밑도는 전주지역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60%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현재 전주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광신종합건설, 현대비에스앤씨, ㈜유탑건설 등 민간건설회사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내용은,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시 지역자재를 80% 이상 사용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 배정토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건설업체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 입찰시 지역업체를 필수 참여토록 하고 저가 하도급은 지양하며 지역 현안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협약에 참여한 민간건설회사의 사업승인과 착공, 설계변경 등 인허가 관련업무시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주고 사업지연 예방을 도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MOU에 참여한 업체들은 입찰 담합 등을 배제한 공정한 경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낙찰시에는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기간 준수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이번 지역건설 활성화 협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형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지역자재를 사용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띄어 시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지역업체의 입찰수주와 부실시공 예방, 공사기간 준수 등을 위해 전주시도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김영태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 시정에

전주시 다울마당 사례발표 공유한마당 생태동물원 등 8개 팀 우수사례 발표

전주시의 민관행정 정책인 '다울마당'의 사례발표회가 1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울마당은 전주에 꼭 필요한 정책이나 더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현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정책의 장이다.

이날 행사는 23개의 다울마당 중 △1회용품 줄이기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전주정신 △청년희망단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전주이야기 시민 △생태동물원 등 7개 다울마당이 참여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사례발표는 1년 동안의 활동성과를 결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진공원 '맘껏숲 조성' 사업은 특별사례로 발표됐다.

민간위원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나서 사업의 적절성, 의견 반영 과정, 사업효과 등을 설득력 있게 소개함으로써 다울마당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청중의 평가다.

우수 다울마당 선정은 평가위원과 현장참여자의 합산평가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현장참여자들은 팀별 사례발표가 끝날 때마다 청중응답시스템(심플로우)을 통해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 복원, 전주정신 정립, 생태동물원 조성,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등 수많은 전주시의 주요정책들이 시민들이 참여한 다울마당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성공사례를 통해 배우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 다울마당을 직접민주주의의 표본이자 가장 독보적인 민관 거버넌스 정책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매월 700만원 이상 '호화 도피생활' 즐겨

검찰,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수사 일단락… 최 전 교육감 재판은 내년 1월 10일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됐다.

최 전 교육감은 매월 700만원 이상의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10년 9월 변호인과 연락을 끊어 종적을 감췄다.

그는 수중에 있던 1억원을 챙겨 몸을 숨긴 뒤 서울 일대의 찜질방을 전전하다 2011년 4월 인천에 자리 잡았다.

최 전 교육감은 그의 동생인 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거나 부동산중개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명,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체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수법 등으로 도피 생활을 해왔다.

동시에 동생인 최 전 사장과 그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총 84곳의 병원과 약국에서 1026회에 달하는 진료와 처방을 받아 요양급여 2130만원도 부정으로 수급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거 및 8년 도피생활 조력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이 19일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김관정 차장검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가 도주 기간 받은 외래진료는 연평균 65차례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7회에 4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하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 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의 호화 도피생활은 지난 11월 7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되며 끝이 났다.

최 전 교육감은 2000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교육감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차명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협의를 적용해 최 전 교육감을 추가 기소했다.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강석훈 기자

김제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화재

19일 오전 7시20분경 김제시 백산면의 한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6동 중 3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9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닐하우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강석훈 기자

택시에 떨어진 휴대폰 훔치다가

택시 좌석 아래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53)는 지난 2일 오전 2시경 익산시 B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내리면서 좌석 아래에 떨어져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가 절취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경 익산시 C동 A모씨 자택 앞에서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볼링장 안 가방 절도범 검거

볼링장 안에서 가방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48)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6시 21분경 군산시 Y볼링장 안에서 피해자 B모씨(36)가 하우스볼 거치대에 놓아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7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강석훈 기자

전주시, 올 하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전주시는 19일 시청 강당에서 2018년 하반기 정년 퇴임식을 열고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에 퇴임하는 공무원은 송채옥 전 회계과장과 장봉근 전 완산 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전 덕진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30명이다.

정년퇴임식은 후배 공무원들의 마음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퇴직자 배우자들에게 감사의 꽃다발이 전달됐다.

또한, 퇴직자들의 마지막 근무 부서에 올해 처음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은 퇴직 선배들의 새로운 앞날에 행복을 기원하며 합창을 했다.

장봉근 전 완산구 행정지원과장은 퇴직자들을 대표해 "30년 이상 몸담았던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퇴직자 모두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후배 공무원들 모두 위대한 꽃심의 도시 전주시의 강한 힘이 되어 66만 전주시민에게 뜨겁게 사랑받는 전주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치신 퇴직 공무원들과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내조에 힘써주신 배우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퇴직 이후에도 전주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한·중 어업협정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덜미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해경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시에 진행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 특별단속'에서 2척의 중국어선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승선원 8명) A호(84t급)가 18일 오후 3시4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위치와 소유자를 알려주는 부표와 깃대를 그물에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t을 잡은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또, 18일 자정께 어청도 남서쪽 118㎞ 해상에서 검거된 91t급 중국어선 B호가 실제 엔진 출력과 어선 전체 길이가 허가내용과 다르지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구 3.7t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앞장

전주시보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지역 4개기관과 '따심' 추진 협약 체결

전주시의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보건소는 19일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전주지역 4개 기관과 '따심'(따뜻한 관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심'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우울감 및 정신건강,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고 캠페인·홍보활동과 취업알선 및 자활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시가 지난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한 사람 중 38%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정신질환 장애가 2순위(19.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종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경제적 취약계층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접근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매주 수요일 조기평가 클리닉, 우울증과 자살 척도 검사 및 상담, 지역사회 기관 연계, 자살유가족 심리지원 연계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살 및 정신질환,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5~6)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0199(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찬미산업개발, 덕진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유)찬미산업개발은 연말연시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덕진구에 기탁했다.

김종기 찬미산업개발 대표는 평소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전주영아원에 20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성금 100만원과 추운 겨울에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에게 써달라며 100만원을 더하여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종기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이면 더욱 쓸쓸할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덕진구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유)찬미산업개발 김종기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받은 성금은 뜻에 따라 지역의 저소득 아동과 독거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